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

- 『썩트는 大地』 주록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진 아*

<목 차>

- I. 서론
- II. 만주국 건국의 당위성과 국책의 미화
- III. ‘의사(擬似)제국’에서의 정체성 찾기
- IV. 절망과 도피의 공간으로서 만주
- V. 결론

【요 약】

193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일제는 조선 지배에 있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체제를 구축한다. 내선일체의 근본 목적은 조선 민중의 철저한 황민화(皇民化)에 있었고 이는 법률적·사회적 병합(併合)과 아울러 정신적·사상적 동화(同化)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에 있어 문학은 매우 효과적인 선전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작가들에 대한 사상적 탄압은 극심해졌고 수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창작 방향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거나 혹은 아예 창작 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 문학이 소위 ‘암흑기’를 맞이한 것과는 달리 만주에서

* 영남대 박사과정

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

『썩트는 大地』는 만주국 康德 8년(1941년) 11월 15일 新京特別市에 소재한 『만선일보(滿鮮日報)』 출판부에서 간행된 재만 조선인 작품집이다. 서문과 후기에서 염상섭과 신영철은 이 소설집이 만주개척사의 문학적 형상화이며 개척민들의 운명과 정서를 반영함으로써 조선 문학과는 다른 대륙적인 풍격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극찬한다. 나아가 재만 조선인 문학이 만주국 건국정신에 입각한 ‘민족협화(民族協和)’의 ‘왕도낙토(王道樂土)’를 체득한 ‘국민문학(國民文學)’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현지작가의 현지취재, 현지작품, 현지발표’의 ‘현지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 조선 문학과 차별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재만 조선인 문학은 그 특성상 ‘암흑기’ 조선 문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민족문학’으로의 위치까지 격상되기도 했고 일제의 만주 지배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친일문학이라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밀림의 여인』, 『초원』, 『유맹』은 일제의 국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근대화라는 문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근대라는 것은 진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대한 수탈과 억압을 전제하는 것이다. 일제는 ‘민족협화’, ‘왕도낙토’ 등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였고 작가들은 비판력을 상실한 채 이러한 문제들을 작품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시대적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새벽』, 『추석』, 『암야』는 초기 이주민들의 수난사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만주는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수난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타자로서의 설움과 핍박을 대리 보상받을 ‘의사(擬似)제국’으로서의 욕망을 꿈꾸게 하는 곳이기도 했다. 만주를 절박한 생존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상반된 상황의 표출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제화』는 만주국을 절망과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시 수많은 작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만주를 그리던 것과는 달리 작가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 주인공을 통해 만주국 건국이념에 은폐되어 있는 허구성을 폭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폭로의 시도가 끝내 비관에 머물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썩트는 대지』는 당시 독자적인 재만 조선인 문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결국 ‘新滿洲의 協和精神’으로 대변되는 일제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를 ‘國民文學’으로 이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I. 서론

193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일제는 조선 지배에 있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체제를 구축한다. 내선일체의 근본 목적은 조선 민중의 철저한 황민화(皇民化)에 있었고 이는 법률적·사회적 병합(併合)과 아울러 정신적·사상적 동화(同化)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작가들에 대한 사상적 탄압도 극심해지고 수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창작 방향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거나 혹은 아예 창작 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조선 문학이 소위 ‘암흑기’를 맞이한 것과는 달리 만주에서의 문학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일부에서는 만주에서의 문학 활동을 조선에서의 억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문학의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1970년대를 전후하여 민족문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만주에서의 문학 활동을 ‘이민문학’ 또는 ‘망명문학’이라 지칭하며 당시 조선 문학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¹⁾

이에 반해, 만주에서의 문학 활동이 일제의 ‘괴뢰국가’였던 만주국(滿洲國)의 국책에 순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제에 협력하는 ‘국책 문학(國策文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²⁾ 이러한 주장은 재만 조선인 문학을 평가함에 있어 일제의 만주 개척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력성과 자기 기만의 성격을 작가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만주에서 문학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대략 만주국 건국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의 문학은 이전 시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만주국 건국 이전의 작품들은 대부분 개별적 망명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것들로 조선인의 시각에서 만주를 그린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재만 조선인 작가들은 ‘현지작가의 현지취재, 현지작품, 현지발표’의 ‘현지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 조선 문학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³⁾

본고에서 살펴볼 『썩트는 大地』는 만주국 康德 8년(1941년) 11월 15일 新京特別市에 소재한 『만선일보(滿鮮日報)』 출판부에서 간행된 재만 조선인 작품집이다.⁴⁾ 서문과 후기에서 염상섭과 신영철은 이 소설

1)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 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2) 조진기, 「일제의 만주정책과 간도문학」, 『배달말』 제 27집, 2000.

———, 「만주 개척민 소설연구」, 『친일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우리말글학회, 2002.

3) 1940. 1. 12~2. 6까지 『만선일보』의 학예란에는 黃健, 尹道赫, 金貴, 朴榮濬, 金春崗, 李光賢, 玄卿駿 申曙野, 安壽吉, 宋志泳 등에 의해 만주 조선인 문학 정립을 주장하는 평론이 실린 바 있다. 이들은 조선 문학의 전통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단순히 조선 문학의 연장이 아닌 재만 조선인 문학만의 독자성을 찾아야 한다는 데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4) 申瑩澈 編, 『썩트는 大地』, 滿鮮日報社 出版部, 康德 8년(1941) 11월, 이 작품집에는 김창걸의 「暗夜」, 박영준의 「密林의 女人」, 신서야의 「秋夕」, 안

집이 만주개척사의 문학적 형상화이며 개척민들의 운명과 정서를 반영함으로써 조선 문학과는 다른 대륙적인 풍격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극찬한다. 나아가 그들은 재만 조선인 문학이 만주국 건국정신에 입각한 ‘민족협화(民族協和)’의 ‘왕도낙토(王道樂土)’를 체득한 ‘국민문학(國民文學)’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재만 조선인 문학가들에 의해 창작되고 출판된 작품집인 『싸트는 대지』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말 만주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생산된 재만 조선인 문학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 가 극찬族 에서는

는 일본 중심의 위계질서 확립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또한 일제는 자신들의 이념 공작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문화통제 기구를 설치하여 철저한 ‘관제(官制)문화 정책’을 실행하였다. 본 장에서 살펴볼 작품들은 당시 일제의 국책에 입각하여 쓰여진 것들이다.

박영준의 『密林의 女人』⁷⁾은 일제의 이념 공작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나’는 10여 년에 걸쳐 ‘산속생활’을 하던 끝에 일제 토벌군에 의해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된 김순이를 ‘정신적으로 귀화’시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당시 일제는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과 만주국의 세계사적 위상 및 사명을 민중에게 선전하고 주입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들은 무력 진압 위주의 ‘治標工作’과 함께 혁명세력과 민중을 분리시키는 ‘治本工作’을 수행하였고, 양자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만주국의 치안을 확보하였다. 특히, ‘만주국 협화회’는 이와 같은 ‘思想戰’, ‘治本工作’의 주도체로서 관동군에 의해 결성된 조직체로 만주국 건국부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협화회’는 이른바 ‘민족협화’의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만주국 지배의 정당성을 민중들에게 주입시키는 한편 지방행정체계와 일체화하면서 민중의 일상생활로 침투해 들어갔다. 이들은 ‘민족협화’를 추구하는 만주민중의 자발적 대중조직이라는 외피를 쓰고 항일민중운동에 대한 계급적·민족적 분리, 분열정책을 통해 만주민중을 지배체제 안으로 획득해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이 작품에서와 같이 유격대를 귀순시키는 일은 협화회 ‘특수공작’의 주요 임무였다. 이러한 임무는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귀순자들을 사상적으로 선도하고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직업적으로 지도하였다. 이를 위해 ‘협화회’는 실제로 자체

성의 기본원리로서 표방되었다.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사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278쪽.)

7) 1941년 7월 중 집필, 9월 『만선일보』에 발표, 해방 후 개작하여 『현대문학』(1974. 6.)에 발표.

8) 임성모, 앞의 글, 101~102쪽 참고.

적인 직업안내소, 직영농장, 공장 등을 경영하기도 했다.⁹⁾

‘나’는 ‘협화회’의 도움을 받으며 순이가 계급투쟁 의식을 버리고 만주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들의 사상이란 세계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 하지만 그것은 국가와 세계의 대부분이 부정당하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계급을 없시킨다는 것은 결국 한 계급만을 만든다는 것이요 따라서 나머지 계급의 행복을 뺏는다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다면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한 사상은 못될 것입니다.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못된다면 그 사상만이 절대성을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인류를 행복되게 하기 위한 수단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긴상도 이 세상에 마음이 안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행복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기서도 하고시픈 일을 할 수 있스리라고 생각합니다.¹⁰⁾

순이는 오랜 산속 생활로 인해 문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작품 속에서 순이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울 만큼 순진하게 그려진다. 이러한 순이와 ‘나’의 관계는 문명과 야만의 관계로 도식화되고 ‘나’에 의해 순이는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다. ‘밀림’의 순이를 문명 속으로, 즉 만주국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였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이를 교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나’는 순이를 데려와 문명의 생활에 적응시키는데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순이를 밀림에서 ‘왕도낙토’로 나오게 하는 것은 ‘민족협화’와 ‘도의국가(道義國家)’ 건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결국 순이는 ‘나’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밀림’에서 나오게 되고 ‘나’는 귀순공작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당시 일제는 ‘협화회’를 통해 항일유격대를 토벌하고 그들을 교화시키는데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시

9) 위의 글, 154쪽.

10) 박영준, 『밀림의 여인』, 신영철 편, 앞의 책, 43~44쪽.

켰으며 이는 작품을 통해 밀림 속 야만인과 인자한 문명인의 관계로 치환되어 정당화된다.

한편, 작가는 순이처럼 ‘산속생활’을 하는 자들을 모두 ‘공산비(共產匪)’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토벌 혹은 교화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당시 만주국 ‘만철사원회(滿鐵社員會)’에서 발행한 『만주사전』에서는 ‘비적(匪賊)’의 개념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규정짓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비적’의 개념은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만주사변 이전의 ‘비적’이 주로 ‘마적(馬賊)’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만주사변 이후부터는 항일세력들이 ‘비적’의 가장 큰 범주를 차지했다. 특히, 이 시기에 해당하는 ‘비적’의 규정에는 이전의 ‘마적’ 등은 없었다.¹¹⁾ 따라서 ‘공산비’로 대표되는 순이는 항일혁명세력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순이를 교화시키는 일은 항일혁명세력을 토벌하여 그들을 만주국 건국이념에 맞는 국민으로 만들고 나아가 제국의 신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자한 지식인의 모습과 ‘협화회’의 귀순공작을 긍정적으로 그림으로써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37년 일제는 『만몽일보(滿蒙日報)』(新京)와 『간도일보(間島日報)』(間島)를 합병하여 『만선일보』를 창간한다. 관동군(關東軍)의 기관지였으며 당시 재만 조선인 작가들의 유일한 발표 매체였던 『만선일보』에서는 1938년부터 해마다 ‘신춘문예작품’을 현상모집한데 이어 1940년부

11) 『만주사전』에 따르면 ‘비적’은 만주사변 이전인 옛 동삼성(東三省) 시대 마적(주로 몽고족)으로 “호자(胡子)·호비(胡匪)·홍발자(紅髮子)”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 마적을 ‘비적’이라고 했다. 일제와 만주국은 만주사변 이후 봉기한 옛 동북군계의 항일군(抗日軍)을 병비(兵匪), 또는 정치비(政治匪), 토착 종교세력의 항일군을 종교비(宗教匪), 또는 회비(會匪), 한인(韓人) 민족주의계 독립군을 선비(鮮匪), 마적계 항일 부대를 토비(土匪), 중국 공산당계 유격대를 공비(共匪), 또는 사상비(思想匪)로 구분하였다.『오마이뉴스』, 2004. 10. 6 기사 참고.)

터는 ‘협화미담’ 현상모집(1940. 6. 22부터 광고.), ‘금연문예작품’ 현상모집(1941. 3. 9부터 광고.)¹²⁾을 실시한다. 아래의 i)은 협화미담의 현상모집 광고이다. 이 광고는 ‘民族協和의 道義國家에 조흔 模範이 될 만한 숨은 實話 美談’을 통해 일제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이다. ii)는 금연문예작품 현상모집 광고이며 당시 만주의 아편 금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광고는 일제의 국책 시행이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i) 滿洲國內에 居住하는 鮮系國民과 內, 滿, 蒙, 漢, 露 等 鮮系以外의 國民과의 間에 展開된 事件中 民族協和의 精神을 尤감업시 發揮하야 누가 듯드래도 感激할 만한 實話를 널리 募集함. 그리고 美談의 內容은 鮮系를 위하야 他系 國民이 協和 又是 奉仕한 이야기도 조코, 鮮系가 他系 國民을 희생 봉사한 일도 可함. 요컨대 民族協和의 道義國家에 조흔 模範이 될만한 숨은 實話 美談을 널리 世上에 알리려는 것을 目的으로 함.¹³⁾

ii) 阿片의 斷金은 我國 建國以來의 重要國策으로서 이래 그 完遂에 官民 全力을 傾注하야온 結果 建國第十年을 맞이한 今日 그 成果는 顯著한 것이 있고 國內의 民生은 이로 말미암아 面目을 一新하였습니다. <...> 建國十周年 記念事業으로서 批煙拒毒의 警鐘을 울리며 다시 各種의 事業을 計劃하야 最後의 完璧을 期하라함에 件하야 本社에서는 本國策에 協力하고자 禁煙文藝作品의 一大顯賞募集을 하기로 되었아오니 <...>¹⁴⁾

한찬숙의 『草原』¹⁵⁾은 몽고족과 조선족 간의 화합을 다루고 있는 작

12) 채훈, 『滿鮮日報所載 各種作品 懸賞募集의 廣告文案과 관련된 몇 가지 論議』,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157쪽.

13) 『만선일보』, 1940. 3. 28.

14) 『만선일보』, 1941. 3. 9.

15) 1941년 2월 집필.

품으로 ‘협화미담’에 속한다. 한찬숙은 ‘間島 日本總領事館’에 근무하다 ‘間島 汪清縣實業科長’으로 재직하였으며 이러한 경력은 작품 속에서 책임감 강한 관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몽고의 깊은 초원 ‘과잉콜’에서 양을 치는 처녀인 마루도는 어느 날 아버지가 데리고 온 기공서(旗公署)의 축산주임(畜産主任) 임봉익을 만나게 된다. 봉익은 내지(內地)의 축산학교를 졸업한 후 ‘대륙진출의 큰 뜻을 품고’ 이곳으로 온 청년이다. 봉익의 눈에 ‘원시적 유목민족’인 몽고족들은 ‘대 과학 문명의 현대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따라서 그는 이런 미개한 종족의 지도를 자청한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몽고 민족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신을 바쳐야 될 마음’으로 온갖 열성을 기울여 일한다. 이러한 노력은 마루도와 사랑도 미루게 만든다. 자신의 사랑보다는 몽고 계급의 무지를 타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버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몽고천지에서 미개한 민족을 위하여 온갖 고통과 곤난과 번민을 물리치고 씩씩하게 싸워나가야 될 관리가 아니냐. 나는 언제나 하나만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만주국내 흥안사성(興安四省)에 잇서서 원시적 생활을 계속하고 잇는 몽고민족을 위하여 내 한몸을 아낌없이 던진 마음엔 이러한 연애의 감정에 붓들린다는 것처럼 맹낭한 것이 었다 고까지 결론을 부치기 위하여 머리를 좌우로 흔르러 보았다!¹⁶⁾

봉익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생활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무지한 주민들을 ‘가르쳐 주고 인도하여’ 몽고의 원시적 생활을 문명화시키는 그는 ‘동리의 구원자’이다. 그러나 몽고족을 지도하여 문명화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족 간의 차이는 부각된다. 봉익이 몽고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국이 식민지를 내려다보는 시선과 같다. 이러한 시선의 불균형한 구도는 일방적인 개념 설정을 낳게 하고 주민들은 야만의 위치로

16) 한찬숙, 『초원』, 신영철, 앞의 책, 136쪽.

전략한다. 봉익이 내세우는 새로운 규율과 제도는 근대 담론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표방한다. 이는 문명과 야만, 근대와 봉건, 합리와 비합리, 선진과 후진 등의 이항 대립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하며 봉익으로부터 시작되는 문명화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논리와 매우 흡사하다.

당시 일제는 아시아 국가들을 자신들이 개척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이들과의 끊임없는 차이를 통해 자신들을 문명으로 규정했다. 이는 식민지 통치의 합리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러한 행위는 문명화 혹은 근대화의 사명을 띠고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들은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을 타자화 함으로써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문명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가 문명이라는 증거는, 주변에서 야만을 발견하고 그 토지를 영유함으로써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곳을 영유하고 개척의 장소를 삼을 수 있는 권리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것이다.¹⁷⁾

당시 몽고는 소련과 인접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일제는 관동군 내부에 내몽고 특무기관을 설치하고 1936년 5월 ‘몽고인에 대한 지도방침’을 제정하여 몽고족에 대한 특수 대책을 실시하였다.¹⁸⁾ 이러한 일제의 권력은 만주 건국과 더불어 몽고의 전통적인 구습을 버리게 하고 근대적인 것을 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근대성이 침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작품에서 봉익으로 대표되는 근대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

작품 속에서 예방주사, 신약, 자동차, 양복, 기계농법 등으로 무장한 봉익과 달리 ‘미개한’ 몽고의 전통은 활불(活佛, 喇嘛敎의 승려)로 상징된다. 어느 날, ‘파잉콜’에 활불이 들어오게 되고 마루도는 정조를 빼앗

17) 小森陽一,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32~35쪽.

18) 김장선,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 연구』 역락, 2004, 21쪽.

길 위기에 처한다. 작가는 활불로 인해 몽고인들이 입는 폐해가 심각한데도 활불이 몽고에서 지니는 세력이 절대적이라는 점, 활불에게 정조를 바치는 풍습을 명예로 여기는 점 등을 비판한다. 이처럼 미개한 전통은 몽고 민족을 더욱 열등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런 열등함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생활방식에 의해 비판받고 개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조를 통한 위계화는 ‘봉사’라는 이름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제가 내세운 ‘민족협화’는 오히려 민족 간의 서열을 분명히 구분 짓고 자신들의 침략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봉익이라는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타자를 배제, 억압하며 나아가 그들에게 동화를 강요하는 일제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경준의 『流氓』¹⁹⁾은 일제의 집단부락 정책과 아편 정책으로 인한 감금의 정당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제가 ‘왕도낙토’를 건설하기 위해 ‘아편과 밀수를 자행하던 조선인’을 수용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시키던 집단부락 내의 ‘보도소(輔導所)’ 생활을 다루고 있다.

1939년 8월 13일 현경준은 ‘大梨樹溝’라는 ‘不正業者 部落’을 방문한다. 이곳을 방문한 후 현경준은 아래의 글을 쓰게 되는데 일제의 집단수용정책과 집단부락의 수용자 계층에 대한 그의 이해가 잘 드러난다.

현경준은 이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맹』을 창작하게 된다.

이 部落은 再昨年 治外法權撤廢時 檢舉한 不正業者(密輸業者), 詐欺橫領犯, 中毒者 等を 全滿 四個所에 나누어 設定한 部落中の 하나인데, 中 多部分은 阿片中毒者들이다. 部落에는 輔導所까지 있어서 積極의 指導를 하여 그 成績은 豫期 以上으로 良好하다하나 그러나 多年의 惡習은 좀체로 없어질 줄 모르고 그들 特有의 秘密 工作은 그칠 줄 모른다 한다. <…> 이 中毒者 속에는 相當한 인테리가 있는 것으로서 그들의

19) 1940년 5월 집필, 『인문평론』 7~8월 호에 발표, 이후 『마음의 琴線』(홍문서관, 1942.)으로 개작.

過去를 뒤져보면, 政治運動者, 藝術家, 教育者들도 있다한다. (輔導所 所長은 極力 감추지만)²⁰⁾

작품에서 보도소 소장은 일제의 보도소 설치가 낙오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만주에 ‘왕도낙토’를 건설하려는 위대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소장의 눈에 아편에 중독된 조선인들은 어쩔 수 없는 낙오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장은 아편중독자(범법자)들을 집단 수용하는 일제의 국책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우리 만주국(滿洲國)에서 전만(全滿) 오개소에다가 이러한 특수부락을 설치한 것은 무슨 까닭인줄 아시우? 빗두루 인생의 행로에서 탈선하여 나간 여러분을 바른길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려는 것이 그 제일본의라는 것은 자초부터 알수잇는 일이 아니우? 왕도락토(王道樂土)를 건설하려는 만주국이 아니고는 꿈에두 상상할 수 업는 이런 고마운 혜택을 모르구 여전히 빗두루만 나가려는 여러분을 대할때 나는 참말 세상사가 슬퍼나서 견딜수가 없소.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다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케 여러분과 고락을 가지하며 여러분의 그 쓰라린 과거를 여러분의 기억에서 흔적업시 써서버리구 새로운 광명의 길을 뚫게하자는 것이 아닛나까? <...> 우리는 여러분께 장래의 은혜를 지워서 그 가품을 바드려구 이르는것두 아니구 내 뱃속을 채우려는 것두 아닛니다.²¹⁾

소장은 일제에 의해 조작된 허구적 이념인 ‘왕도낙토’ 건설을 주장함으로써 일제의 만주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이러한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신흥 국가’에서의 ‘바른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지

20) 현경준, 『中毒者들의 말』, 『문장』, 1939. 11, 190쪽.

21) 현경준, 『유맹』, 신영철 편, 앞의 책, 172~173쪽.

식을 이용하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중독자들을 입소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의 직업을 중시하여 기술자, 특히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만들 수 있는 목수, 피혁공, 제화공과 같은 사람들을 우선시하였고 다음으로 지식인을 입소시켰다²²⁾ ‘왕도낙토’, ‘도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소장의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인 낙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배려인 듯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중독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³⁾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집단이민을 시작하면서 조선인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집단부락(集團部落)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항일유격운동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산야에 분산된 농가를 일정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무주지대(無住地帶)를 설정한 정책이다. 원래 조선 총독부의 지휘 아래 간도 지역에서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에 주목한 관동군에 의해 만주 전역으로 확산된 것이었다⁴⁾ 집단부락은 개인의 생명유지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집단 전체를 위해서는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소장은 일제(一齊)검색을 통해 마약이나 현품, 남녀 간의 치정관계, 만주부락과의 연락 증거가 발각되면 그들을 구류소(拘留所)로 보내어 감금한다. 이러한 권력은 사회 전체, 혹은 집단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

22) 季琨, 『日帝強占期 間島小説研究』, 경남대 박사논문, 2002, 84쪽 참고.

23) 당시 일제는 아편중독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康生院’을 설치하여 아편중독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강생원의 열악한 시설과 불합리한 운용 방식 때문에 아편 중독자들은 강생원에 가기를 꺼려했다. 이후, 만주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그들을 공장이나 광산 등지로 끌고 가 노동자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강생원은 ‘勞工院’, ‘抗生院’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휘탁, 『중국의 ‘만주국’ 사회경제사 연구』 구성과와 과제·수탈사』 일변도의 식민지사 연구와 ‘애국주의’의 한기, 『중국근현대사연구』 제 8집, 1999, 179쪽 참고.)

24) 임성모, 『일본-만주국』, 『역사비평』, 1995, 봄, 186쪽.

고 수용자들을 인도주의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량’한다는 명목 하에 정당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일목요연한 보고서로 정리된다. 이들을 교화시켜 정상인으로 만드는 것, 이는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정한 작용’을 가하여 그들을 ‘권력이 요구하는 개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관찰과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²⁵⁾ 작품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특히 자위단(自衛團)²⁶⁾은 중독자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감시 체제를 이룰 수 있었다.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던 명우는 소장의 과장된 친절과 특별한 관심으로 인해 결국 “소장의 앞에 다시 달려가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비며 울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소장의 친절과 관심에는 그를 회유하여 적절히 이용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다.

인젠 규선이허구 병철의 피로두 회복된 듯해서 내일 아침이면 구류소로 보낼까 하는데 그런데 난 첨부터 그러케 밝지만 군과 규선이만은 달리 봐왔네. 다행히 내 눈이 틀리지 않혀서 군에게선 애써온 보람을 느꼈지만 아직 규선이만은 잘 넘어가지 않는단 말야. 그래 생각다 못해 군의 공작을 좀 비러볼까 하는데 어찌케 묘한 방책이 업슬까?²⁷⁾

소장은 명우에게 규선을 개심시킨다면 결혼을 주선하고 고향의 어머니

25)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참고.

26) 선인비적을 퇴치하기 위하여 식민 국가는 조선인 부락에서 만선친화회, 광명부녀회, 협조회, 자위단 등 여러 관변단체를 만들었다. 이중 자위단은 조선인 비적을 추격하는 조직이다. 때때로 조선인 부락 내에서 반일운동 혐의자들에 대한 대량 검속이 있었다. (한석정, 『만주국의 민족형성과 외래 거류민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연구조선일과 일본인의 경우』, 『한국사회학』 제 31집, 1997, 864쪽.)

27) 현경준, 앞의 책, 242쪽.

니를 만주로 불러 만나게 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는 중독자를 갱생시킨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탄압하고 회유하여 일제의 만주지배정책을 수행하는 하수인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제는 당시 그들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단부락에 수용하여 감시, 통제하는 한편 갖가지 방법으로 회유하여 자신들의 정책 수행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아편 금지라는 보편적인 과제만을 문제삼을 뿐, 조선인들이 아편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당시 만주국(특히 도시)의 조선인들은 대부분 고국을 떠나 이역에서 방랑한다는 의식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한 곳에 뿌리내려 항구적인 業을 영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목돈을 쥐면 고향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²⁸⁾ 그들을 중독자로 만든 데에는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시 만주의 정치적·사회적 조건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만주국은 1932년부터 아편에 관한 각종 법령들을 제정하고 아편의 재배·收買·판매·吸食 등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아편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전매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아편 단금 정책’에 의해 아편 흡연자의 등기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누구나 아편 흡연을 신청하면 흡연증을 받고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었다.²⁹⁾ 이러한 문제들을

28) 윤휘탁, 『만주국의 이등국(공)만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제 169집, 2001, 159쪽.

29) 만주국의 아편중독자수는 1933년의 10만 명에서 1939년의 1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잠복된 중독자수도 1944년에는 약 120만에 달했다. 특히 1938년부터 단금 정책의 일환으로 아편 재배 면적의 점진적인 감축 및 8년 후의 재배 금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熱河省과 興安西省편의 일부 지구를 합법적인 아편 재배 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편 재배 면적이 1938년 59만 畝에서 1944년 73만 무로 증가했다. (윤휘탁, 『중국의 ‘만주국’ 사회경제사 연구성과와 과제‘수탈사’ 일변도의 식민지사 연구와 ‘애국주의’의 한계』, 『중국근현대사연구』 제 8집, 1999, 178~179쪽 참고.)

도외시한 채 만주에서 아편중독자가 된 조선인들을 단지 게으르고 부도덕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나아가 ‘왕도낙토’ 건설을 긍정하는 국책문학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주국 건국은 일제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도된 하나의 근대적 프로젝트였다. 만주국 건국에서 표방된 새로운 제도나 규율 등은 표면적으로는 근대적인 듯하지만 그러한 근대적 정책들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결국 침략으로 이어졌다. 본 장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통해 식민지 근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일제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동시에 제국으로의 동화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Ⅲ. ‘의사(擬似)제국’에서의 정체성 찾기

초기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조선에서의 가난을 견디지 못해 만주로 떠났다.³⁰⁾ 그들은 만주로 가면 조선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

30) 우리 민족이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6세기부터였고 1869년과 1870년에 걸친 흉년을 맞이했을 때, 두만강을 건너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을 대량 이주의 계기로 본다. 만주 이민사를 살펴보면 그 첫 단계는 흔히 ‘월경 이민 시대’라 일컬어지는 조선 말기부터 3·1운동 직전까지이다. 조선조 봉건 관료에 의한 엄격한 월경 금압책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만주로 이주해 가는 이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금압 일변도의 이조 변방 정책도 방향 전환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3·1 운동부터 만주사변(1931) 직전까지는 ‘망명·유랑 이민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만주 유이민 격증 현상은 그 이민 동기의 정치적 측면을 강력히 뒷받침해 준다. 만주 유이민사의 마지막 단계는 ‘정책 이민 시대’로 만주사변에서 해방까지로 볼 수 있다. 일제의 식민 정책에 의해 이른바 ‘만주개척단’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조직적인 축방정책의 희생물로 유이민이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의 값싼 전위 부대로 떨어지기에 이르렀다.

라 기대했지만 기본적으로 배우고 가진 것이 없던 이들은 만주에서도 조선에서와 다를 바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중국 관헌의 압력과 수탈, 마적의 습격, 지주의 횡포 등은 이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꿈꾸며 만주로 건너왔지만 만주에서의 생활은 결코 조선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가난으로 인한 밀매(密賣), 밀수(密輸) 등은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그런 가운데 매매혼(賣買婚)까지 성행하였다. 이 작품집에서도 이주민 수난사의 양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김창걸의 『暗夜』³¹⁾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주민의 현실을 ‘어두움’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경상도에서 살던 명손이네는 생활을 위해 만주로 건너오지만 만주에서의 생활 또한 조선에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힘들기만 하다. 명손은 ‘만주는 눈이 모자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판이라’고 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논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산골’에서 살아야 했다. 명손의 어머니는 여름철이면 ‘뾰족물 장돌뱅이’로 돌고 아버지와 명손은 ‘밭날가리’를 부치거나 ‘샅일’, ‘뜯 노동’, ‘나무 등짐’ 등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생활은 늘 쪼들리기만 한다. 같은 이주민이면서 명손이와 혼담이 오갔던 고분이네는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 고분이네는 너무 가난하여 고분을 나이 오십에 부인을 대 여섯 번이나 갈아치운 윤 주사나 혹은 ‘싸스(외눈둥이)’인 ‘남씨재(南氏)’에게 팔아야 할 처지이다. 이는 딸을 팔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가난을 이길 수 없는 이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당시 매매혼은 여성뿐 아니라 이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문제였다. 마을에서 상당한 재산가로 행세하는 최 영감은 간도로 이사 올 당시 빌어먹는 처지였지만 딸 다섯을 모두 팔아 지금의 부(富)를 이루었다. 또한 아들만 있는 최돌이의 집에서는 형제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임종국, 『일제 침략과 친일 군상』, 청사, 1982, 244~245쪽.)

31) 『만선일보』에 『지새는 밤』(1939. 5.)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만 했다. 이렇듯 그들에게 매매혼의 문제는 생활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큰일인 동시에 혼한 일이기도 했다.

이렇듯 어간에는 점점 매혼하는 일이 드물지만 그전만에도 꼭 심했든 것을 나는 간도 드러와서 듯기도 했고 보기도 했다³²⁾

이주민들은 한 순간도 게으르게 살지 않았지만 살림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그들의 가난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웠으며 딸을 파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들의 삶은 매우 서글프게 그려진다. 결국 명손이와 고분이는 야반도주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떠날 것을 결심한다. 마을을 떠나기 전 명손은 “이 어두운 밤이 밝으면 빛나는 대낮이 되드시 나와 고분이와의 압길에도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밝은 햇살이 비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난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 도약을 시도한다.

이주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은 안수길의 『새벽』³³⁾에서 극도의 비극으로 드러난다. 『새벽』은 한 소년의 회상을 통해 이주민 가족이 당하는 불합리함과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개척민 생활사의 한 토막이란 평가³⁴⁾를 받을 만큼 이주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이주민들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당한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여실히 드러낸다.

‘나’의 아버지는 법으로 금지된 소금 밀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당국에 의해 배급되는 관염(官鹽)은 사염(私鹽)보다 비싸고 질이 나빴지만 당국에서는 관염만을 살 것을 강요했다. 이러한 소금 밀매는 농

32) 김창걸, 『암야』, 신영철 편, 앞의 책, 19쪽.

33) 1935년 11월 『호가네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집필.

34) 金午星, 『朝鮮의 開拓文學-在滿朝鮮人 作品集 『싸트는 大地』를 平함』, 『國民文學』, 1943. 3, 22쪽, 이정은, 『한국의 유민소설 연구일제 강점기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1994, 123쪽에서 재인용.

민들의 가난한 삶과 중국 관권에 의해 착취당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소금 밀매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주로부터 빚을 얻으면서 담보로 잡힌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조선인들은 딸이나 아내를 담보로 중국인 지주에게 정착 자금을 지원받아 받을 부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수를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곡식으로는 빚을 다 갚기 어려웠고 할 수 없이 계속 빚을 내게 되어 결국 한 ‘지팡’에서 평생 떠나지 못했다. 대개의 지팡주(地方主, 農場主, 지주)들은 빚을 주는데 있어 젊은 처녀들을 가장 확실한 담보로 생각하였고 ‘나’의 누이도 그런 사정으로 볼모가 되었던 것이다.

이 나라(舊政權時代東三省)의 습관은 인질(人質)이라는 것을 조금도 어색하게 생각지 안했다. 주민들은 이 이방(異邦)의 괴습(怪習)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럴법이 어데잇나하고들 모다 무슨 부정한 일을 하는것가치 마음이 켜름칙하였스나 그러지 안호면 돈을 돌려주지안는데는 할 수가 없었다. 설마 남의 처자를 빼아슬라고 이러케 생각하였스나 그 결과는 이따금 사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잇섯다.³⁵⁾

소금 밀매로 잡혀간 아버지는 박치만의 도움으로 석방되지만 결국 누나는 박치만의 첩으로 팔려가게 된다. 박치만은 중국으로 귀화한 조선인 마름이다. 그는 중국인에게 적절히 협조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을 취하며 조선인들을 착취한다. 그는 자신 역시 소작인이면서도 마치 중국인 지주처럼 행세하여 조선인들로부터 ‘얼되놈’이라 불린다. 그에 비해 ‘지팡주’인 중국인 호씨는 오히려 조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고 수해 때는 곡식을 풀어 추수 때까지의 식량을 나누어 주기도 하는 지극히 긍정적인 인물이다. 여기서 작가는 단순히 지주를 관대하게, 마름을 부정적으로 제시할 뿐 박치만과 지주와의 관계, 박치만과 농민들과의 관계, 또는 그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실제적 배경 등은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민족 내부의 것으로 환원시킨다.

35) 안수길, 『새벽』, 신영철 편, 앞의 책, 85쪽.

결국 박치만에게 시집을 가기로 한 누나는 자살하고 만다. 누나의 자살은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로써 담보로 잡힌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딸의 죽음으로 어머니는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지 조선인 아버지나 남편들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작가는 딸을 담보로 빚을 얻은 아버지를 통해 만주에 가족을 이끌고 온 조선인 가장의 참담한 모습을 부각시킨다. 이들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것이었다.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기에 이 가족의 비극은 더욱 비참하게 묘사된다.

당시 만주에는 이주민들을 보호해 줄 어떤 법률이나 제도도 없었다. 오히려 조선인 이주민들은 가장 손쉬운 착취 대상이었다. 작품 속에서는 마적의 습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군과 순경이 오히려 더 무서운 착취자로 등장한다. 그들은 먹을 것을 빼앗고 부녀자를 겁탈하지만 농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다. 마적보다 무서운 중국의 육군은 ‘장작림(張作霖) 군벌’의 ‘사용병(私傭兵)’으로 대변되며 그들의 약탈과 횡포는 ‘법이 허락하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탈과 횡포가 모두 만주국 건국 이전, ‘舊政權 시대’의 일이라는 것이다. 작품 첫머리에서 “이 小説은 滿洲建國 되기 훨씬前 張作霖政權時代의 어떤 家族의 生活을 記錄한 一青年의 手記”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작품 속 배경은 만주 이주 초기 단계이다. 이는 만주국 건국 이전 이주민들의 수난과 대비하여 만주국 건국 후는 희망에 찬 ‘새벽’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누구 하나 십 여 년 후에 이 땅에 그들이 갈망하는 세상이 웅장한 보조로 차저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⁶⁾

36) 1965년에 발간된 창작집 『벼』에는 위의 인용 부분들이 삭제되어 있다.

작가는 일제의 치안유지 정책과 만주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으로 표면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만주를 긍정적인 ‘새벽’으로 표현하며 이전의 부정적인 면과 비교한다. 그러나 만주국 건국 후 과연 조선 이주민들이 ‘갈망하는’ 세상이 찾아왔는지는 의문이다. 만주국 건국 후에도 농민들은 지방 지주와 일본 식민 회사로부터의 착취, 잡다한 세금, 고리대 등으로 인해 계속되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³⁷⁾ 특히 만주국 건국 후 일제는 강제적이고도 계획적인 집단 이민 정책으로 이주민들을 토지 수탈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오로지 이주민들의 수난사라는 점만을 부각시킨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이 작품이 개척 이민의 비극을 소년의 목격담으로 치밀하게 구성한 까닭에 형식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³⁸⁾

신서야의 『秋夕』³⁹⁾은 “아무런 정치적 권리와 인간적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는 조선인 농민의 고뇌와 애수를 서글픈 음조로 묘사한⁴⁰⁾ 작품이다. 김 서방은 ‘안해를 일흔 한만흔 추석’이 다가오자 어미 없이 자라는 자매에게 인조견 옷이나마 한 벌씩 사 주고 아내의 제찬(祭饌)을 사기 위해 사미(私米)를 숨겨 팔아 20원의 돈을 마련한다. 작년 추석, 아내는 사미를 팔다 감시원에게 적발되어 그 충격으로 죽고 만다. 아내가 죽은 이유도 사미 판매 때문이었지만 계속되는 가난으로 인해 김 서방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미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⁴¹⁾ 앞서 살펴본 『새벽』에서와 같이 이 작품에서도 밀매는 중요한

37) 유원숙,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 연구』, 『부대사학』 제 19집, 1995, 646쪽 참고.

38)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75쪽 참고.

39) 1940년 7월 집필, 8월 8~9일 『만선일보』에 발표.

40) 김호웅,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7, 12, 133쪽.

41) 만주국의 ‘양곡출하법’에 의하면 농민들은 자기가 지은 농산품도 국가에서 제정한 혈값으로 국가에만 팔 수 있을 뿐 마음대로 시장에 내다 팔수도

생활 수단으로 등장한다. 밀매 이외에는 돈을 벌 방법이 없을 만큼 생활은 열악했다. 이에 김 서방은 “남의 물건을 탐내어 훔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도적놈이려니와 자기 물건 — 아모리 자기 손으로 지은 물건이라도 잘못 팔면 나라 법에 의하여 그도 역시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광목을 사는 과정에서 상인조차 김 서방을 무시하고 폭리를 취하려 한다. 설상가상으로 김 서방은 달구지를 길가 전신주에 매어 두었다가 교통 방해죄로 순사에게 끌려간다. 김 서방은 환갑이 지난 사람에게는 나라도 죄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순사에게 잘못했다고 빌지만 혼이 난 후에야 겨우 풀려난다. 옛날에는 훈장까지 지낸 그가 평소부터 입버릇처럼 불러오던 “춘강화월야(春江花月夜)인데 추창풍우석(秋窓風雨夕)”이란 시를 읊조리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린다. 만주에서의 생활은 김 서방에게 서러움만 안겨 주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관헌들의 압력, 중국인들의 무시와 배척, 생활의 서투름은 그의 서러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당하는 불합리함에 그저 시를 읊조리며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 설정을 통해 이주민들의 고단한 삶의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작품들에서 이주민들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피해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단지 피해자로서의 인식만을 되풀이할 뿐 이주와 더불어 형성된 조선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대로 표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이주민들의 비참한 현실 또한 일제하의 민족적 문제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제하의 암울한 현실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주민들의 수난사 또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만주는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없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국가로부터 상품가격인 고가로 사먹어야 하는데 사실 이 법은 일제의 강제적 수탈정책이었다. (김장선, 앞의 책, 121쪽.)

수난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로서의 설움과 핍박을 대리 보상받을 ‘의사(擬似)제국’으로서의 욕망을 꿈꾸게 하는 곳이기도 했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국내적으로는 조선 농민들의 토지 소유 형태와 토지 정책, 식민지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고 국외적으로는 만주를 둘러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함으로써 역사적 인식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IV. 절망과 도피의 공간으로서 만주

황건의 『祭火』⁴²⁾는 1인칭의 서간체 형식 소설이다. 작품에는 뚜렷한 서사가 없고 시종일관 괴로워하는 주인공의 모습만이 부각된다. 그리고 그의 괴로움은 추측 불가능할 정도의 산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

주인공인 ‘나’는 “삼년 전 봄, 다른 벗들이 혹은 현해탄을 건지고 혹은 촌으로 가고 하여 대부분 흐터져 버린 뒤 서울서 방황하다” 만주로 이주해 온 지식인 청년이다. ‘나’는 “다시 이곳에서 문화며 생활이며 그 이상 더 넓기도 하고 진실도 한 것의 한 정열”을 가지기 위해 ‘문화청년회(文化靑年會)’⁴³⁾를 결성하여 활동한다. 그러나 만주에서의 문화 활동은 점차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임원들 간의 몸싸움으로 ‘청년회’는 해체된다. ‘청년회’ 회원인 필수는 만주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러한 가능성 속에 은폐되어 있던 허구성을 발견하면서 절망한다. 그리고 그는 함께

42) 1940. 11 집필.

43) ‘문화청년회’는 ‘협화회’의 문화부 문예반이다. 황건은 『만선일보』에 발표한 평론 『滿洲朝鮮人文學의 今後發展策』(1940. 1. 16.)에서 만주 조선인 문학의 발전책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 중 ‘協和會 文化部 文藝班에 加入 活動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활동하던 회원들의 현실 순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런 반성도 자책도 고민도’ 없이 시국에 동조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드디어 흑백을 가려야 할때가 당도하고 그리도 놀라운 눈으로 보고 잇든 허울조흔 관중이 마저 머리지자 이제껏 쭈늘든 무대는 어느새 발길로 차고 오금을 허트린채 모두 제구녁을 차쳐 헤매이든 쏠이란 참 볼 수 업섯든 것인줄 아네...그중에도 직스리웠든 일부 인간들을 제대로 낫닉은 옛 향간에 도라가게 하엿든 것은 이 시대가 준 조흔것이엇다고 하겟지만 아모런 반성도 가책도 고민도 업는 속에 형태를 바꾸기는 하엿스나 오늘까지도 그 교묘하게 된 페랭이를 모로 거꾸로 쓰고 우리든 이름 미테서 제판은 춤을 추려하는 그 허튼 쏠들이란 참 볼수업는 것이엇네.⁴⁴⁾

‘나’는 “일쓰기 남달리 자라왔든 서로의 우정이 만주라는 먼 곳에 와서 이러케 참혹하게 문질러지고 마렸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믿음을 잃은 날의 슬픔”에 잠겨 점차 무기력해진다. ‘나’는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애매한 지점”에 서서 방황하고 있었다. ‘나’의 절망은 아픈 어머니와, 고생하는 누이, 깨어진 우정, 절망적인 사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에게서 기인한다. 한때는 ‘나’도 ‘영웅시대’를 가지고 힘과 보람에 차 있었지만 이제 이곳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며 끝없는 공허감에 빠진다. 만주에서 비교적 잘 적응한 태규와 달리 필수나 ‘나’에게 있어 이곳은 처음과는 사뭇 다른 절망의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쉽게 순응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탈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때는 나도 영웅시대를 가졌섯다. 미래만을 아렸섯다. 현재라는 것도 미래에 통하여 잊섯기 때문에 모든 것은 힘과 보람에 차 밝엇섯다. 허

44) 황건, 『제화』, 신영철, 앞의 책, 260쪽.

나 나는 그로부터 십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었다. 그 사이에 나는 이제껏 몰랐든 너무나 만흔 경악과 회의를 포태하게 되었든 것이니 아름다움과 진실할려든 모든 성곽은 아스뿔하여 갔다. 그래도 나는 마치 사람에게 쏘끼우는 고기와도 가치 매키우는 곳에서마다 다른 성곽 다른 길을 차저 헤매었었다. 허나 스산하고도 어두운 오래인 밤뒤 나는 드디어 자신이 원갓것에서 배반당하고 마릿슴을 아렸다⁴⁵⁾

이러한 절망의 공간에서 ‘나’에게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처음의 희망과 동경이 경악과 회의로 변하게 된 것을 깨닫고 끝없이 절망하고 방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은 ‘청년회’ 회원인 기주와 가깝게 지내면서 약간씩 좁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와 함께 ‘만철사원구락부(滿鐵社員俱樂部)’에서 조선의 예술단체 ‘백성좌(白星座)’의 승무 공연을 보게 된다. 공연을 본 후 사람들은 그것을 ‘막을 길 없는 동경과 애욕의 괴로운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일종의 제화를 싸하올리는 말업는 형용’과 같다고 느낀다. 결국 ‘나’는 기주를 조선에 보내고 자살할 것을 결심한다. 만주국이 내세운 ‘민족협화’와 ‘왕도낙토’가 약속하는 미래가 모두 허구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상 이 곳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욕망, 미련도 남지 않게 된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이러한 우울함은 만주국 건국이념의 허구성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과 함께 만주국의 현실에서 좌절과 배신을 경험한 지식인 청년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황건의 『제화』는 만주국의 정당성을 선전하거나 홍보한 작품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던 재만 조선인 작가들에게 만주국의 건국이념은 식민지 조선에서와는 다른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듯했다. 그 가능성이란 핏박받는 제국주의의 타자가 아닌 만주국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이러한 이유

45) 위의 책, 256쪽.

들은 경우에 따라 작가들을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국책에 순응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는 만주에서도 조선에서와 같이 작가들에 대한 탄압과 회유를 반복하였고 국책에 부합하는 작품을 쓸 것을 강요하였다. 황건은 이러한 일제의 정책과 만주국 건국이념에 내재된 허구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지식인의 끝없는 ‘절망’과 ‘허무’, ‘좌절’을 통해 폭로하려고 하였다.

V. 결론

지금까지 『싹트는 대지』~『주록』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재만 조선인 문학은 그 특성상 ‘암흑기’ 조선 문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민족문학’으로의 위치까지 격상되기도 했고 일제의 만주 지배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친일문학이라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만 조선인 문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나 저항의 이분법적 평가는 자칫 작품의 올바른 분석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작품의 외부와 내부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우선, II에서 살펴 본 「밀림의 여인」, 「초원」, 「유맹」은 일제의 국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근대화라는 문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근대라는 것은 진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대한 수탈과 억압을 전제하는 것이다. 일제는 ‘민족협화’, ‘왕도낙토’ 등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였고 작가들은 비판력을 상실한 채 이러한 문제들을 작품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시대적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III에서 살펴 본 「새벽」, 「추석」, 「암야」는 초기 이주민들의 수난사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만주는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수난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타자로서의 설움과 핍박을 대리 보상받을 ‘의사(擬似)제국’으로서의 욕망을 꿈꾸게 하는 곳이기도 했다. 만주를 절박한 생존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상반된 상황의 표출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IV에서 살펴 본 『제화』는 만주국을 절망과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시 수많은 작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만주를 그리던 것과는 달리 작가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 주인공을 통해 만주국 건국이념에 은폐되어 있는 허구성을 폭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폭로의 시도가 끝내 비판에 머물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썩트는 대지』는 당시 독자적인 재만 조선인 문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결국 ‘新滿洲의 協和精神’으로 대변되는 일제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를 ‘國民文學’으로 이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주제어 : 근대성(modernity), 내선일체(Japan and Korea are one), 만주(Manchuria), 만주개척(reclaim of Manchuria), 오족협화(confederation of five ethnic groups), 의사제국주의(pseudo-imperialism), 친일소설(novel of pro-Japanese), 타자(the others)

참고문헌

기본자료

申瑩澈 編, 『썩트는 大地』, 滿鮮日報社 出版部, 康德 8년(1941) 11월.

『만선일보』~『문장』~『인문평론』~『현대문학』.

논문 및 평론

노상래, 「『국민문학』~조재 한국작가의 일본어 소설 연구」, 『한민족어문학』~제 44집, 2004.

오양호, 「1940년대 초기 만주 이민문학<만주시인집>·<만선일보> 문예란 소재 작품 연구 서설」, 『한민족어문학』~제 27집, 1995.

유원숙,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 연구」, 『부대사학』~제 19집, 1995.

윤휘탁, 「중국의 ‘만주국’ 사회경제사 연구성과와 과제‘수탈사’ 일변도의 식민지사 연구와 ‘애국주의’의 한계」, 『중국근현대사연구』~제 8집, 1999.

_____, 「만주국의 이등국(공)만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제 169집, 2001.

임성모, 「만주국협화회의 대민지배정책과 그 실태」, 『동양사학연구』~제 42집, 1993.

_____, 「일본-만주국」, 『역사비평』, 1995, 봄.

조진기, 「일제의 만주정책과 간도문학」, 『배달말』~제 27집, 2000.

_____, 「만주 개척민 소설연구」, 『친일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우리말글학회, 2002.

_____,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현경준의 <마음의 琴線>에 대하여」, 『현대소설연구』, 제 17집, 2002.

한석정, 「만주국의 민족형성과 외래 거류민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연구-조선일과 일본인의 경우」, 『한국 사회학』~제 31집, 1997.

학위논문

季 琨, 『日帝強占期 間島小說研究』, 경남대 박사논문, 2002.

이정은, 『한국의 유민소설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4,

단행본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사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김장선, 『위만주국시기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 연구』, 역락, 2004.

김호웅,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7.

안수길, 『벼』, 정음사, 1965.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_____,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 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임종국, 『일제 침략과 친일 군상』, 청사, 1982.

채 훈,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현경준, 『마음의 금선』, 홍문서관, 1942.

小森陽一,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_____, 김부용 옮김,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9.

<Abstract>

A study on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 Mainly on *Ssakteuneun Daeji*(The Budding Earth) -

Kim, Jin-A

Ssakteuneun Daeji(The Budding Earth), being studied in this research, is a writing by a Korean writer in Manchuria, and was published by Manseonilbo in Singyeong Special City, Manchuria, on November 15, the 8th year of Gangdeok (A.D. 1941). Generally, according to its character, the literature of Korean writers in Manchuria was sometimes upraised to the position of ‘racial literature’ which can compensate the gap of Korean literary world in ‘dark age,’ and sometimes suspected as Japanophile literature in the fact that it had close relation with Japanese governing policy in Manchuria. But, the estimate by dichotomy as cooperation or resistance on discussion on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can come near to make the right analyzation difficult. In this research, regarding this fact, it was endeavored to maintain more objective view point regarding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iterature.

Milimeui Yeoin(Woman in Jungle), Chowon(Grassland), and Yumaeng (Refugee) are writings which reflect Japanese policy as it is. The issue of modernization, which is being commonly discovered in all of the three writings, has duplicated meaning. The modernization, here, means not only liberalism but also premise exploitation and repression on the colony. The Japanese imperialism justified their invasion through fabricated ideology, and writers showed their attitude of following periodical situation, losing their critical ability and revealing these issues through their writings without filtering.

Saebyeok(Dawn), Chuseok(Thanksgiving Day), and Amya(Dark Night) are writings which describes early refugee's history of sufferings as actual facts, relatively realistically. Manchuria, at that time, was a place of sufferings to Korean refugees, but it also was a place of 'similar empire' made them dream desires to compensate their sorrows and sufferings as others. When we see Manchuria as a space of acute survival, it was not impossible to express this conflicting situation.

Jehwa is noticeable in the fact that it is describing Manchuria as a place of hopeless and confusion. Differently from other writers' description of Manchuria as a positive place where they can make their dreams come true, the writer, through the hero who was under extreme confusion, tried to reveal the fabrication which was hidden under the ideology of foundation of Manchurian country. But it shows its limit in the fact that this attempt was come to an end of pessimism, finally.

Ssakteuneun Daeji(The Budding Earth) has significant value in the fact that it represents independent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at that time. But it also has certain limit in the fact that it accepts Japanese policy as it is, and tries to continue the result as 'national literature.'

김진아

경북 경산시 대동 214번지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전화: 053-810-2110(학교사무실) 011-540-1067

e-mail: lovefool115@hanmail.net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